

집단소송에 풋백옵션 확대까지... IPO 주관사 부담 커진다

거래소, 상장규정·세칙 개정 예고
주관사 자발적 풋백옵션 부여하기도
한누리 '과두' 투자 피해주주 모아
주관증권사 상대 민사소송 준비중

'부실 상장' 논란을 빚은 과두 사태로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과 의무도 확대된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며 내년 I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과두는 1만792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보다 42%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1200억원)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거의 없었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



과두 이지호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8월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제 2의 과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데 있어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

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 90% 가격으로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서도 상장 주관사의 판단 하에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만 부여했지만, 조기 부실 기업에까지 풋백옵션의 의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

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 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추가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상장한 파로스아이 바이오 역시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과두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주주들을 모아 과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

초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과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모든 모든 개인주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한누리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과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7월 초 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과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기반이 없는 혁신 기업들의 IPO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나 IPO 행을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풋백옵션에 소송까지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 기술특례상장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美 건축종료 기대감... 증시 우상향 그럴까

공매도 전면금지 등 불확실성 개선
외국인 이달 국내주식 3.1조 순매수
"연말 쇼핑시즌 등 호재 예상하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 잔존"

물가 둔화와 함께 미국의 건축도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50%(60.19포인트) 상승한 2469.85에 장을 마감했다. 공매도 한시적 전면 중단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3일 기준으로는 4.28%(101.51포인트)가 올랐다. 공매도 전면 중단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 등 주식시장 내 불확실성이 개선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89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3조

118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직전달 3.7% 상승했다는 점과 시장 예상치였던 3.3% 상승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7일에는 국내 증시가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하향,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유가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증시를 괴롭힌 리스크 요인들이 한층 완화된 상황"이라며 "재로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되돌림 성격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산타렐리 가능성 등이 겹쳐 주식시장의 다양한 호재 요인이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에 대응한 연준 위원들의 구두개입 가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점쳐졌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하락, 24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있지만 미국장기국채금리하락이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의 금리 하락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점차 감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직후 2500선까지 폭등했던 코스피는 2400선 지지력을 확인하며 2차 상승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단기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11월 중 2500선, 연내 2600선 돌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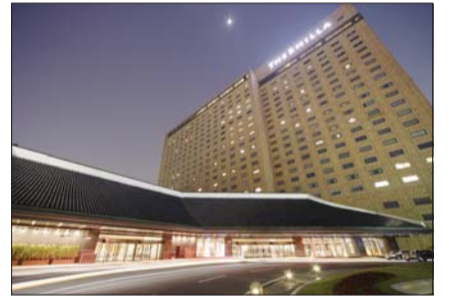
中 단체관광객 유입... 4분기 수혜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호텔신라

6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가 중국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와 코로나 19를 거치며 관광객 비중이 줄어들고, 파이공(보파리상)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이 치열했다. 연초부터 파이공항 알선수수료를 정상화 노력으로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은 부진한 상황에서 단체관광객의 입국은 가뭄의 단비"라면서 "4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분기 어닝쇼크, 일시적 현상
"주요 지표들, 개선추세 이어져
내년 가장높은 이익성장 가능"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79%) 하락한 6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호텔신라는 지난 8월 28일 9만4000원까지 오르는 등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장중 5만7900원까지 하락하며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저가를 찍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27일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7% 감소한 1조 118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1.1% 감소한 7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689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실



호텔신라 전경.

적 악화의 원인으로 면세점이 지목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건비 및 체화재고(시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재고) 관련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실적 발표전 7만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6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3분기 어닝쇼크를 두고 재고 관련 손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에도 체화재고 소진에 따른 진통이 발생하겠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점은 아쉬우나 주요 지표들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호텔신라의 주가에는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조상훈 연구원은 "신라면세점은 오랜 기간 갖춰온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 독보적 매입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맞이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호텔신라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채권거래 이벤트 3종 진행

한달간 네이버페이 등 조건부 지급

삼성증권이 채권 거래 이벤트를 11월 한달간 진행한다

이벤트는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든 이벤트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첫번째 이벤트는 기간 내 mPOP 온라인 해외채권 1000달러 이상 순매수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지급

한다. 기존고객·첫 거래 고객 모두 가능하다.

두번째 이벤트는 채권 무거래 고객 대상으로 기간 내 온라인 국내 장외채권 100만원 이상 첫 순매수 시 배달의 민족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기간 내 온라인 국내 장외채권 누적 순매수 금액별 리워드를 지급한다. 순매수급에 따른 현금 리

워드를 지급하는데, 1000만원 이상 시 현금 1만원부터 최대 5억원 이상 시 현금 15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국내장외채권 10만원 이상 첫 매수거래 시 이마트·G·S상품권 5천원을 전원 지급하고, 중개형ISA 계좌에서 국내장외채권 순매수 금액별 이마트-G·S상품권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중개형ISA 채권거래 이벤트'도 11월 한달간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